

경제 성장 전망 긍정적이나

경상수지 적자 지속 예상



몽골중앙은행은 연말 통화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경제 및 통화정책 이행 상황과 경제·은행 부문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24년 11월 기준 석탄 수출 수익은 8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차량·기계장비 및 서비스 수입 증가로 인해 외환 순수유입은 5억 7천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49억 달러로 수입 대비 4.9개월분을 충당 가능한 수준이다.

은행 시스템 자산은 2024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한 62.4조 투그릭에 달했으며, 대출 증가와 국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출 부문에서는 불량채권 비율이 5.1%로 하락하며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4년 11월 기준 인플레이션은 8.1%로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이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은 향후 공공요금 상승과 정부 재정 지출 확대, 경제 활동 증가로 인해 목표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됐다.

2024년 3분기까지 경제는 5.0% 성장했으며, 주요 성장 요인은 광업 및 서비스 부문의 활발한 활동이다. 반면, 농업 부문은 악천후로 인해 25% 축소되어 경제 성장률을 3.5% 감소시키는 요인이 됐다.

2025년에는 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요 프로젝트 투자 증가로 경제 성장률이 7.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품 가격 하락 및 수입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10월 정부 재정은 1.5조 투그릭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세수 수입 증가와 경제 활성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통화 공급은 10월 기준 연간 25.1%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몽골의 주요 프로젝트와 투자 확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박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경제에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몽골,

부가가치세 10%에서 5%로 인하 법안 제안

몽골에서는 기업 및 기관들이 세금 부담과 부채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B.푸르브도르지(B. Purevdorj)는 최근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와 기업 대표들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밝혔다.



"VAT는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주요 수단으로 변질됐다"

경제학자 Ч.Отгочuluу(Ch. Otgochuluu)는 "VAT 인하를 지지한다"며 몽골의 세금 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국가에서는 주로 등록 및 관리 목적으로 VAT를 부과하지만, 몽골은 판매 수익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소비자가 구매 시 VAT를 지불하는 구조는 저소득층과 퇴직자들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몽골 정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VAT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석탄 및 구리 가격 하락과 경제 불황 가능성을 고려할 때, VAT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VAT 시스템 개선, 부패 감소 필요"

"Urbanek"의 대표 Б.Лхарабазав(B. Lkhagvajav)는 "몽골의 VAT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VAT가 1997년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약 305,000대의 POS 기계를 통해 183조 투그릭이 징수되었다"며 이는 시스템 정착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VAT 구조는 회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는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선불 세금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세청에서 VAT를 징수하는 구조는 부패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의 VAT 징수를 폐지하고, VAT를 제품 판매 후에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유동성을 높이고, 관료주의적 부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VAT 인하로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 효과 기대"

푸르브도르지 의원은 VAT 인하 법안을 제안하며, 이는 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VAT가 간접세의 일종으로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율 인하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푸르브도르지 의원은 또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와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의 지지를 촉구했다.